

기 재 일	2009. 10. 28.(수) 조간
페이지수	표지포함 총 5 매
자료문의	자본시장연구원
담당자	연구위원 황세운
연락처	02)3771- 0642
E-mail	neptune@kcmi.re.kr

※ 통신은 10월 27일(화) 12시, 일간지는 10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제 목 :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주요내용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단기사채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10월 2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개최
 - － 본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사채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일본의 단기사채제도 도입 현황,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내용 소개 및 단기사채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 주제발표1에서는 황세운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이 기업어음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으로 단기사채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음
 - － 주제발표2에서는 이누카이 시케히토 교수(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가 일본의 단기사채제도에란 주제로 일본의 도입과정과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하였음
 - － 끝으로 주제발표3에서는 이현철 과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이 단기사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학계 및 업계 참석자들에 의한 지정 토론이 진행되었음

※ 유첨 : [요약] 단기사채제도 도입 방안. 끝.

1. 기업어음 시장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 기업어음 시장의 규모는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를 보임
 - － 2007년부터 나타난 성장은 금융과 건설부문의 CP 발행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기인함
 - －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과 건설부문의 CP 발행은 크게 감소하였고, 공공기업 및 일반기업의 CP 발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 기업어음시장은 실물발행에 따른 비효율성과 투명성의 문제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편의 일환으로 기업어음시장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논의됨
 - － 단기금융시장 개편의 핵심은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있으며, 이는 시스템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임
 - － 콜시장의 지준시장화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RP 및 CP 시장의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외국의 경우 프로그램 발행과 공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CP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 해외 기업어음시장의 성공적 운영에는 프로그램 발행제도의 도입과 정착, 유동성 리스크 분석의 강화가 중요한 요소임
 - － 대체유동성 공급(Back-up line of credit)제도 정착 및 발행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시사점 제공

- 기업어음 법적 이중성 해소와 개선방안으로 단기사채의 도입을 제기함
 - － 기존의 CP와 동일한 상품성을 유지하며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적 이중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 CP 시장 개선의 기본 목적임

- 이를 위해 단기사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음
- 단기사채제도는 동시결제(DVP)가 가능한 전자증권 형태의 채무증권
- 한도발행, 액면분할가능, 발행 및 유통정보의 공유 등의 특성을 가져 기존의 CP가 가지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이 CP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단기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일본의 단기사채제도

이누카이 시케히토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교수)

- 시장 전반에 걸쳐 효율적 자금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일본은 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함
 - － 일본의 단기사채(전자CP) 제도 도입에 필요한 요건으로 안정성, 시장유동성, 무권화 및 저비용화를 통한 효율성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의 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은 증권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시작된 일본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 증권결제의 리스크와 비용을 축소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증권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축을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목표로 함
 - －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통일된 결제법제의 정비, STP화 추진 및 DVP 실현에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단기사채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됨

- CP대체시스템의 구축은 2001년 전자CP 등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Grand Design 마련을 통해 시작되었고, 2003년 3월 전면적인 전자CP제도 도입을 통해 완성되었음
 - － 2003년 3월 단기사채대체시스템을 이용한 복수 종목의 발행이 이루어짐
 - － 전자CP는 정부 공약으로 법제도 측면의 검토가 시작되었고, 당국, 학계, 발행기업, 시장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논의를 거듭하여 실현됨

- 전자 CP의 도입은 무권화를 비롯한 많은 시장변화를 가져옴
 - － CP무권화·대체결제로 인해 결제은행, 발행대리인, 지급대리인이 기능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회가 발생함

- 단기사채대체제도의 발행구조,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그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서 단기사채대체제도가 완전전자화, DVP결제 및 STP의 실현, 발행 및 결제의 신속화를 가져와 CP의 유통이 촉진되었음을 지적함

3.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기업 단기자금 조달이 CP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물발행 및 어음법상 규제적용 등으로 유통시장 발전 및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게 됨
 - －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초단기물 발행 곤란, 발행 및 유통정보 공개 체계가 미흡하고 양도 및 분할이 어려워 유통시장 발달에 한계가 있음
 - － 기업어음의 문제점을 단기사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

-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함
 - － 단기사채의 요건 및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행·유통에 관한 내용을 소개함
 - － 등록기관은 단기사채의 종류 및 종목, 금액, 발행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 상법상 사채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현행 기업어음증권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문별로 구성체계에 대해 소개함
 - － 단기사채의 개념 및 대상, 등록기관 및 참가기관, 등록, 계좌에 대한 내용, 권리 행사에 대한 내용, 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단기사채 등에 대한 특례를 포함, 발행내역 공개 및 감독, 시행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음